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상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전도
아름다운 사람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6)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21)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교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항수

복음의 빛을 이방땅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선교주일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명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아주 오래 전, 주께서 하신
승리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 3:15)

새월이 홀로더 변함없는 천부(天父)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 12:2)

때가 차에
생명의 구주께서 언약대로 낮은
우리에게 오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그리고
이제 당신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명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징계를 받으리라"
(막 16:15)

오늘은 2002년도 선교주일이다. 올해 교회는, 오직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원수에 제한 없이 단기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충현선교훈련원(CMTC)'에 참석하고, 성령강령서 명령하시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진실로 충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되기를 기도하자. 성도를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결음처럼, 복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이 되게 하자. 우리 믿음의 결음이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발걸음이 되게 하자(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드리며 선교회비 작정이 있음).



지나 수요예배 메시지 (이제 배시지)

보상 (막 8:35)

'누구든지 제 목숨을' -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목숨이라는 가장 큰 것을 요구하셨다. 즉,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멈추지 않고(34절), 더 큰 대가로 목숨을 요구하신 것이다.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타난 보상을 세속적인 것으로 대체시켜 예수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는 예수를 따르던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 대신 '세상의 축복'을 보상받으려 한다는 말이다. 사실 죄인이었던 인간이 십자가 앞에서 영광한 삶을 얻으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보상이 아니라 그로써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받을 보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라. 보상에 대해 무지하면 절대로 예수를 따르는 데 자신을 던지지 않을 것이며, 또는 예수께 전혀 영광한 보상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 만일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보상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이러한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다. 그분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요 10:10), 실제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잃으면 구원하리라' -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할 때,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것은 죄악된 근성이다. 생각해 보라. 육신의 정욕과 인욕의 정욕과 이성의 자량으로 통치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은 죄악된 근성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을 때,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이 죽고, 그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동일한 고백 - 미태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 10:39)라고 기록했고, 누가도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고(눅 9:24)를 거부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않는 자,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치를 상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은 분명히 사역을 하는 가장 가치없는 사람으로 평가될 것이다.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도 영혼이 여러 해 볼 물건을 많이 잃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날에 네 영혼을 물로 도로 잃으리니 그러면 내 예 비한 것이 뉘 것이 되었겠느냐?(눅 12:19-20).

십자가는 십자가로 보상하라 - 놀고 연한 시아머니 나모의 아름다움 이별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오르바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백성의 길을 길로 선택했던 룻도 생각해 보라. 그녀는 끼끼이 낯선 땅, 낯선 자리를 선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적어도 세 가지의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기를 위한 보상', 또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보상',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보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보상에 걸맞은 원칙이 존재한다. 그 원칙은 바로 십자가는 십자가로 보상해야 하며, 절대로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앙칼럼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2002년도 새해를 맞으며,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교구위원회에서는 말씀을 읽고 배우며, 신령한 은혜를 통해 충만해진 마음으로 복음전도에 온 힘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평angers 지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한 순간도 그 곳에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쉼, 어느 한 가지도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오직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만을 거두어 먹으면서, 지도자인 모세의 인도에 따라 행군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리하여 민족에게는 가난한 복지를 향한 인내와 순종만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애굽에서의 지난 날은 비록 노예생활이었지만 안정된 잠자리와 풍족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 대한 향수에 젖어 모세에 대해서는 무리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지상명령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는 교인들 간의 교제와 나눔에 익숙했던 우리들의 자세를 새롭게 하라는 요청입니다. 한 예로 교회의 음식 제공이 주간의 국수와 금요집회 전 모임 시간 외에는 없어졌습니다.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 '교회가 이래서 되나?'라고 반문하며 복귀 지도자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과 시험을 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면서 먹을 때면 친교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만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집회에 열심히 참가합시다. 가진 자만이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충만으로 구원사업에 앞장서는 역군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병학 (장로, 교구위원장)

"다들주 필자는 봉사위원장 최태환 장로입니다."

2월과 3월 필자는 8면에 기재

Israel is My son, My firstborn (Exodus 4:22-23)

*"Then you shall say to Pharaoh,
Thus says the LORD,"
Israel is My son, My first-born.
So I said to you, "*

*Let My son go, that he may serve Me;
but you have refused to let him go. Behold,
I will kill your son, your first-born."*

The Creator, Mighty God, asked Moses to tell Pharaoh, "Thus says the Lord, Israel is My son, My firstborn. So I said to you, Let My son go that he may serve Me, but you have refused to let him go. Behold, I will kill your son, your firstborn" (Ex. 4:22&23). These striking verses have an enormous impact on who you and I are as Christians. They reveal our special status, our important position in the world as God's children. All too often our vision of reality gets clouded by the troubles and trials of every day life. We easily forget the blessings of our faith. Israel is God's firstborn son, and we are the sons that follow after them. Let's briefly survey Israel's history and find out what it really means to be a child of God.

At the tower of Babel, God scattered the human population because of their pride and disobedience. Mankind was unable to communicate with God. Basically, there was no hope. But the grace of God came down to Abraham, our ancestor of faith. God gave him a wonderful covenant, "And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And so you shall be a blessing" (Gn. 12:2). God choose Abraham. He took him outside and said, "Now look toward the heavens, and count the stars, if you are able to count them." And He said to him, "So shall your descendants be" (Gn. 15:5). When God made this promise, Abraham had no son. Yet, he believed. Can you even imagine such a blessing? Could you have believed it? As an old man without children, Abraham still believed.

Abraham finally had Isaac. Isaac had two sons, Jacob and Esau. God only loved Jacob, who was the weakest. Jacob had twelve sons and a very difficult life. He worked twenty hard years for his uncle and lived by faith, but experienced strenuous times. He lost one of his youngest sons, Joseph, who was sold into slavery by his brothers. And still, God kept His covenant with these weak people, these strange brothers. Joseph became second in command of Egypt. He helped his family move to Egypt during the famine. His people were shepherds by trade, one of the lowest positions in Egyptian culture. Over time, they became a nation of slaves.

Israel's history, in reality, was very difficult. They didn't look like a blessed nation. For four hundred years, they were Egyptian slaves. They didn't have a leader. They had no king. Their primary job responsibilities were to make and bake bricks. In the Egyptians' eyes, they were just a little better than leprosy. When they looked at their own history, they saw that they truly had nothing. The Egyptians were a strong people with great leaders, power, authority, and their own country. The Israelites had nothing, no knowledge, authority, or wealth. In this world they had little hope.

Let's look at Moses. At eighty years of age, he spent half his life as a Midian shepherd. He viewed his life in sorrow for his people. But God ordered him to tell the great king of Egypt, "Israel is My son, My firstborn". He probably freaked out thinking, "Come on God, look at me. I'm only a shepherd, not a prince. I've got but one stick and I am eighty years old. My people have been slaves for more than four hundred years. Can you hear me, for over four hundred years! Are they your firstborn?" Seriously, when you look at reality, where is the blessing? But God said that these poor and lowly people were His son, His firstborn. God's best love from His heart went to these people, these enslaved, poor, and miserable people.

"See how great a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that we w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such we are. For this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because it did not know Him" (1 Jn. 3:1). Do you understand? If you don't know God, you're not going to believe this history. You're not going to understand how great a love He has

for you. You're only going to look at the earthly things and miss the big picture. You're not going to behold God who has made a way for us to be His children. The world can't see it. They don't know who we are because they don't know God. They don't have faith. Only faith can open your eyes to see the true blessing of being God's child.

The key is faith. The world wants to know God with their own knowledge. It can't be done! It's a privilege to be a child of God. God choose Abraham, Isaac, and Jacob. He absolutely loved them. He fed, trained, and delivered them from the enemy. He bestowed upon them an inheritance far beyond anything this earth has to offer. His promise, continued to move through history until it reached completion in Jesus Christ. "For you are all sons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Gal. 3:26). Jesus i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Can you know Him via experience or knowledge? No! Only by faith. Look at me and the people around you! We are slaves. Are you a child of God? Only through faith can you know God.

The enemy has a hard heart but God know how to deal with the enemy. How much does He love you? Jesus tells us that one soul is better than the whole world. He gave His own life. He showed us how really important we are. God, through Moses, proclaimed to the whole world that Israel was His son, His firstborn. Pharaoh didn't believe it. He believed in himself, in earthly reality. He refused to accept God's Word. Big mistake! When God said, "Let My son go that he may serve Me", Pharaoh didn't, and his firstborn son along with all Egypt's firstborn sons died. The Lord God told Pharaoh to let His son go or else He would kill his firstborn son, "But if there is any further injury, then you shall appoint as a penalty life for life" (Ex. 21:23). We must remember, "Israel was holy to the Lord, The first of His harvest. All who ate of it became guilty; Evil came upon them, declares the Lord" (Jer. 2:3).

Israel was God's firstborn. Do you realize what that means? They were the first fruit, the first sons from birth that every nation would be blessed through their inheritance. Israel was extremely important to this earth. They are God's people, God's chosen. From them came God's begotten Son, but they are the first son. This means that the second, third, fourth, and so on children will come after them. It is from Israel that God saved all other nations, "I have other sheep, which are not of this fold; I must bring them also, and they will hear My voice; and they will become one flock with one shepherd" (Jn. 10:16). Amen! That's us. We received God's grace through His first son.

"When Israel was a youth I loved him, And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Hosea 11:1). Is that true? The New Testament tells us, "He remained there until the death of Herod. This was to fulfill what had been spoken by the Lord through the prophet; 'Out of Egypt I called My Son'" (Mt. 2:15). God delivered Israel and Jesus out of Egypt. Pharaoh's firstborn son died. Herod died.

God choose us to be His children. Do you believe it? Or do you try to understand and know Him through your own knowledge and experience? Do you look at yourself and your position in this world through earthly means? God orders us to address Him as "Our Heavenly Father". As a child of God you should be proud of who you are. You should think yourself better than the whole world. Why are you discouraged? Why do you not believe? Why do you not practice your faith? My dear friend, humbly come to the Lord, hear His voice, and understand what "You are My son, My firstborn" means to you. Praise the Lord.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출 4:22-23)



김성관 목사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농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신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가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농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겠다 하라 하시니라”(출 22-23). 이 본문은 우리의 특별한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요한 위치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들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 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온유를 쉽게 잃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며 우리는 그 뒤를 따른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선 인류가 바벨탑을 쌓는 교만과 불순종을 저지르자 그들을 흩어놓으셨 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과 교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에 게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임했 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 12:2).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로로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우리가 못뎛을 쉰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5).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만 일 여러분이라면 그런 언약을 상상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믿으실 수 있었습니 까?

아담과 요셉

아브라함은 마침내 아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삭에게는 아담과 에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 다. 아담은 열 두 아들을 낳았으며 매우 고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외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 할례를 이행했고, 믿음으로 살았으나 고난 분투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담은 그의 가장 어린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사실 요셉 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도왔습니다. 요셉 일가의 직업은 양치기였으며 이는 당시 애굽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 다. 생활이 흘러, 이들은 노예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온유를 받은 민족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지도자도 없었고, 왕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벼를 구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애 굽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문둥병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발견했습니 다. 애굽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와 권력자 국도를 소유한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 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지식도, 권력도, 부도 없었 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는 거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부름 받던, 80세가 되일까지 절반의 시간을 '미디안'에서 양치기를 생활로 소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마 모세 는 도피하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절 초 보십시오, 저는 양치기일 뿐, 왕 자가 아닙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한 개의 지팡이뿐이며, 나이도 80살이나 된 노 인일 뿐입니다. 내 백성들은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습니 다. 하나님 제 말이 들리십니 까? 400년의 패배를 만듭시다. 그런데도 그들이 당신의 장자라고요?” 정말 현실을 바라보면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하고 천한 백성들이 자 신의 자녀이자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그 최 고의 사랑이 이 노예로 사는, 가난하고 비참한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

“바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얻게 하 셴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 알지 못하니

라”(요일 3:1).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 역사를 믿지 못할 것 입니 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 합니다. 세상은 하나 남게서 마련한 길을 바라보지 못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우리가 누구인 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 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믿음으로 아는 지식

하나님은 아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으로 하나 님을 알리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권 입니 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사 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었고, 훈련시키셨으며,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셨습 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재능하는 그 이상의 유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약 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역사를 통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갈 3:26). 예 수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자신의 경험 이나 지식을 통해 알 수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순종 아니면 멸망

원수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어떻게 다룰 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한 세상에 외지개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현실만을 믿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의 아들을 포함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지 않으면 바로의 장자를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이요.”(출 12:23).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와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으니 그를 삼키 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와 말미암아”(렘 2:3).

이스라엘을 통한 열국의 구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그들은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만 국이 그들의 기업을 통해 복을 받을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동생자가 나오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장자입니다. 이는 곧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나오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작 으로 모든 열국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열국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으리라”(사 10:16). 아멘! 그 열국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를 통해 하나 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애굽에서 떠남

“이스라엘의 아들을 때에 내가 사랑함. 내 아들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호세 아 11:1). 이것은 진실입니까? 실상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해물이 죽기까지 지기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들 함을 이루어 하 십니라”(마 21: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수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바로 의 장자는 죽었으며 해물도 죽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것을 이해하려 하시니까? 또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 분의 모교와 위치로 판단하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어 러운 신분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보다 훨씬 귀중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실망 속에 가시렵니까? 왜 불신하십니까? 왜 믿음대로 행하 지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 앞에 나와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 십시오.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바로 이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일과 같은 축하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즐겨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다가 이 익숙한 구절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축복송이라는 이름으로 이 구절을 두 토막내어 앞 구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만을 노래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만 노래하는 이기적인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인 것을 잊고 그대 내가 선택받았고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고, 오로지 ‘진단’이라는 특권 의식만을 누리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과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사역을 선전할 수 있는 광과관입니다. 복음의 빛진 자가 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나서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 물질을 내어, 그리고 마음을 내어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세계 곳곳에, 어두운 곳에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쉽게 복음을 들 수 없는 열방으로 나아가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당신입니다.

(이수경 전도사)

성경이 말하는 인간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인간 여담

성경에 나타난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참 놀라움과 감사한 사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로, 단지 창조물과 피조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다면’ (창 2:17)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불순종할 경우에는 사망으로써 벌하시리라는 언약을 주셨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보통 ‘행위언약(行爲言約)’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자제히 묵상하며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신 사실이다.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맺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이다.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신 것은 아담을 향한 평강한 배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근엄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면 우리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 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예년에 갖고 오셨고, 또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엄위하신 주권자이 동시에 자비의 아버지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은 언약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고 행하기 수월한 데에 비해서 그 약속이행의 결과는 매우 대단한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으라고 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고문(拷問)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과만을 못 먹게 하셨으니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가? 이렇게 그런 보잘것 없는 순종을 했다고 해서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던 말인가? 이는 여기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이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와 동일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언약은 인간 아담에게 어떤 행위를 마라고 주신 행위 언약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피조물 인생을 향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언약(恩惠言約)’이라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오늘의 단가주요



오늘은 온 교회가 선교주일로 지니는 날이다. 이번 선교주일은 해마다 형식적인 행사로만 진행되는 예년의 선교주일과는 다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무장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전 교회가 하나되어 선교로 발을 내딛는 특별한 헌신의 주일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말씀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좇을 수 없다. 또한 2002년, 1000명 이상의 단가선교사가 나가 있는 것이나, 보내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지난 12월부터 주일 선교기도회가 시작되었고, 1월 9일에는 CMTC가 시작되었다. 온 교회가 먼저 기도회로 하나되어 나가야 하기 위해서는 각 장소에서 헌신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현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국내선교인 외국인으로 대성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2002년 단가선교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자.

선교사 및 2002년 단가선교 기도제목

국가별 단가 선교사(서양)

1. 일상생활의 흐름 가운데서 예수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2. 내게 맡겨진 선교사의 영혼들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3. 온 가족이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최소한 단가 평신도 선교사(서양)

1.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2. 주님과 교회의 교제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3. 장기전 선교사와 하나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 협력선교사(아프리카)

1. 주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있는 사역자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 주님들이 쓰실 현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3.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방성 선교사(아프리카 C국)

1.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은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2. 어려운 회사 업무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3. 멀어져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도록.

김영암 선교사(탄자니아-잔지바)

1. 카르메 테크니컬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자선자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 학생들을 기술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으로 잘 양육 받을 수 있도록.
2. 이슬람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도록.
3. 집 근처의 이슬람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
4. 중·고등부 연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복음으로 지도할 얼굴을 보내주시도록.

2002년 단가선교팀

1.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되어 나가는 선교나 보내는 선교로 동참하도록.
2. 2002년 단가선교를 위한 모든 얼굴들과 참여자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복음에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되어 잘 감당하도록.
3. CMTC 선교훈련을 통하여 전 교인이 잘 훈련되도록.
4. 복음에 헌신되고 훈련된 1000명 이상의 얼굴을 보내주시도록.
5. 가야 할 땅에 성령님이 앞서 가셔서 이미여진 영혼들을 예비해 주시도록.



복음에서 교제함

방 준 영 (목사, 신혼가정부 지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빌 1:5).

교제와 관련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창 2: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독처하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시다. 타락 전, 에덴동산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친밀하게 교제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추고 숨길 것이 없는 진실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교제가 깨졌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교제가 깨진 모습입니다. 부부 간에도 친밀한 교제가 깨지면, 서로에게 숨기고 감추기 시작합니다. 가면을 쓰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 참된 교제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하여 숨은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진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주의 속죄니라"(히 10:19,2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살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며 온전케 됩니다. 온전한 교제의 확신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은 소망하며

최승민, 박민정 가정 (신혼가정부 교사)

지난 3년 동안 청년1부 교사로 청년부를 섬기며 믿음의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부족했던 청년의 시절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훈련시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환경의 변화와 주변의 권면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2002년부터 아내와 함께 신혼가정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생소해서 조금 어색하였다. 하지만, 집회를 통하여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가 함께하는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배우자의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며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함께 대화하는 시간들이 정말 은혜스럽고 감사했다. 그러나 우리 부부도 결혼한 지 6년밖에 안되었고 신혼가정부의 교사로 섬기기에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매일 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사랑3반(새 가정)의 부부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리고 먼저 우리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서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충현의 만나로 가정예배를 드리던 중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정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여 주셨다는 것이다. 그것은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고넬료의 가정이다. 개인적인 열심을 가진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은 이때에 믿음의 가정의 모델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002년도에는 우리 가정뿐 아니라 충현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 가정 화평의 원천이요 행복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인 가정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글 : 최승민)



헬멧을 씌울까?

임영호, 이바인 가정 (신혼가정부)



큰 딸이 없기를 기도했다.

남편과 나는 집을 나설 때에는 전혀 다른 기분이 되어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나. 한참을 지나서 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우리 한결이여 헬멧을 끼우지" 내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진담처럼 농담을 했다. "헬멧을 씌워서 내보내자." 한참 동안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의 능력이라 너무도 미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만이 유일하다는 아주 당연한 결론을 손에 쥐게 되었다. 아이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려 애쓴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나는 진심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어 고만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아이의 미래로서 진정 해야 할 일은 뒷인 채 "마음이 해줄게." 이 한결이여 헬멧을 끼우지 아이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지려 뛰어나지 않는 것이... 그 날의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에게 헬멧을 씌우거나 손을 잡고 걸을 것보다는 일이나 자녀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 아이를 맡기고, 우리 아이가 주님을 알고 기뻐하도록 도와주며 축복해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더불어 이런 마음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했다. (글 : 이바인)

결혼 1년 3개월

마영훈, 최희는 가정 (신혼가정부)



우리야 결혼한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요?

살면 살수록 남편이 나와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고, 어떨 때는 인간의 탈을 쓴 외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지요.

어릴 적 할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녔던 남편은 이제는 부인의 손에 이끌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참 많이 사랑하셨나 봅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야 저는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저에게 주셨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기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지만, 남편 때문에 신앙에 더욱 간절히 믿음을 갖게 되고, 남편의 순진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며 슬픈적이었던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처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도 가끔씩 남편이 미워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면 제 마음에 들러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구원한 생명인데, 감히 내가 미워할 자격이 있을까? 얼마나 황폐한 명명인데... 내가 남편을 위해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 함께 산 시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을 주셨음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가정이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게 기도합니다. (글 : 최희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1월 18일 금요일

2. 약속이 있어야 할 이유

창세기에 나타난 원시 역사(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택함을 받았다(창 12:1-3). 성경의 역사를 인간 중심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모세나 요새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셨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끄신 것이지만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로 8:16). 어느 정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택함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루셨으며 이스라엘을 통해 구세주를 보내주셨다(창 17:7-8).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다. 혹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혹은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둘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때문이다(창 1:26).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태어나거나 세상을 다스리게 된 것이 아니다.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필요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창 2장). 온갖 자연들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며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 자녀를 낳는 것까지도 모두 인간을 위한 축복인 것이다(시 127:3-5).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축복하시고자 하는데 인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가? 그 마음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했던 아합왕 때를 보라. 아합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바알'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왕상 21:20-25).

우약은 인간의 생명과 우주만물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시 104:29).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로 정해졌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요동하며 바다가 넘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시 46:1-3).

+ 양호실

10교구 이장하 안수집사(남68세) 폐암이 호전되어 통원 치료 중입니다. 교회에 나오실 만큼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홍순 권사(여80세)** 관련 수술 후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며 정신작용도 원활치 않습니다. 항상 믿음 가운데서 생활하며 체력도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방주 집사(남75세)** 뇌출혈로 쓰러진 후 합병증으로 의사 표현도 잘 못합니다. 병의 치유와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낙담하지 말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7교구 김복미 성도(여41세) 전신에 암이 퍼져 통증이 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평안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심상국 성도(남71세)** 지난 15일 위암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호실에는 임실하지 않았지만, 교구마다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사] - 입국하는 선교사들(1)

알렌의 입국(1884. 9.)

1880년대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국법으로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로 만주지방을 거점으로 기독교의 접촉이 있었으나 1880년대부터 선교사가 내한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 · 수용되었다. 즉 미감리회 선교부의 지시를 받은 일본 주재 감리선 선교사 매글레이가 1884년 6월에 내한하여 고종을 알현하고 교육 및 의료 선교 윤락을 받음으로 교육과 의료로 통한 선교사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미국 감리회측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선교사를 가장 먼저 상륙시켜 터전을 마련토록 한 것은 미국 북장로회였다. 그들은 이미 의사의 해군과 신학교 졸업생인 언더우드를 선교사로 파견할 것을 결정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첫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은 의사였던 알렌이었다. 알렌은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1883년 10월부터 상해에서 일하던 중,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1884년 9월 14일 상해를 떠나 부산을 거쳐 9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하였고 서울에 들어온 날은 9월 22일이었다. 이리하여 그는 우리 나라에 공적으로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까지 선교사의 신분은 아직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음은 지, 그는 미국 영사관의 공의의 신분으로 입국하였다. 알렌은 그 후 개설된 영국 공사관의 공의로 임명되었고, 여러 외국 기관들의 부속 의사로 봉사하였다. 미국 공사와 외국인들의 신임을 쌓아가면서 그리고 한국 정부의 묵인 아래 그는 개척선교사로서 자신의 임무에도 충실하였다. 그의 가정은 낯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개척선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종교적 삶이었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삶은 그가 정을 들이고 있던 요리사(일본인), 유모(중국인)보다는 아학선생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학선생의 한 사람이었던 노도사가 뒷날 서울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1884년 12월 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에서 민영익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고종과 민비의 협조를 얻게 되었고 예외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의 건의로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이 개설될 즈음에는 감리교, 장로교의 의료선교사는 물론 복음선교사로 입국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의 세속적 역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면서도 인간이 계획하지 못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표를 이루어 가셨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황수현' 자매를 소개합니다



대학 졸업반으로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고 있으며 취미는 음악 듣기와 웹 서핑입니다. 중등2학까지 출원교회를 다녔으나 집이 멀다는 핑계로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학교에 다니며 매일 말씀을 드림으로 다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례교인이면서도 신앙생활을 통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이제부터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마침 어머니께서도 권면해 주셔서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저 교회가 크고 깨끗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게 된 중원교회는 봉사할 곳도 많고, 말씀을 배울 기회도 많아서 좋습니다. 주일마다 동생과 함께 새가족부에 다니면서 서로 더 친해져서 기쁩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좋고, 앞으로 주의 말씀 믿고 잘 따르겠습니다.

'황명훈' 형제를 소개합니다



누나(황수현)와 함께 새가족부에서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집이 멀고 학업이 바빠서 교회 다니기가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나옴에 되었습니다. 다시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다음주 전승

416장 하나님은 와야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 찬송가는 일본 사람인 미다시 다네키에게 영국 선교사의 통역일을 맡아보다가 주님의 사랑과 소명을 깨닫고 인생을 주께 헌신하게 되면서 받은 은혜의 감격을 읊진 것이다. 가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로 하여 작사한 것으로 이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한 말씀과 맥락을 같이한다. 인간은 사랑받던 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적대시하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에 감복하여 주 앞에 나온 사람이다. 이 찬송가의 내용은 복음의 정수이며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마다 선포된 핵심적인 진리이다. 이 찬송은 2박자의 느낌을 가지고 부르며 박자의 음과 그대를 부르는데는 가사를 생각하며 읊조리듯이 부르면 좋다. 4절은 가사의 내용에 따라 선포의 느낌을 가지고 조금은 느리면서 웅장하게 부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헌양원외교회)

사랑하는 강가일 ♥김유석 선생님을



추워야 할 겨울 날씨가 왜 이리 따뜻한 거요? 많이 추지 않으니마 줄기 하네요. 그래도 강기 조심하시는 거 잊지마세요. 미움, 시기, 질투가 많았던 제가 사랑을 배우고, 어느덧 이제는 예배다무 교사가 되었네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두 선생님께 이렇게 감사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작년 한 해 동안 최후한 일이 많았어요. 분반공부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딴 짓이 생각나네요. 제가 생각해도 무척 창피해요. 철이 덜 든 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신 저희들이 준비해서 성경말씀표현 시간에도 느낌 건데 정말 성경말씀을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가르치는 것보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제 자신이 노력하고 교해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사가 될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 양성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힘들어서 빠지고 싶은 생각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결국 해냈어요. "나네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처럼요.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예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많은 일을 충실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선생님, 이제 교사 일을 취사더러다 자주 뵈 수 있기를 바래요. 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할 가치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강가일, 김유석 선생님께 사랑해요! ~♡

2002년 1월 14일
두 선생님을 무척 사랑하는 제자
김희정 드림



진리의 샘

나훔(Nahum)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면서까지 복을 전하기를 싫어했던 나라, '니느네'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인 아시리아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싫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고대하는 나라였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요나 선지자는 '니느네'에 가서 심판을 외쳐야 했고,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멸망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앗수르' (앗수르의 수도가 니느네)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요나 선지자의 판단이 옳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니느네'가 멸망당하도록 그대로 두었다면,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는 점차 어떻게 될 것일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앗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B.C.612).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즉, 나훔 선지자가 앗수르의 심판을 예언 하였고, 마침내 앗수르가 멸망당함으로써 그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인류역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죄' 때문이지 결코 '앗수르' 때문이 아니라 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앗수르'가 아닌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앗수르'를 탓하는 것은 마치 요나 선지자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앗수르'도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으니, 다시금 범죄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적대 한 나라의 심판은 이스라엘이든지 이방 나라든지 가리지 않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훔'을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계속적으로 위협하는 '앗수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태도를 기억하고 읽으시는데, 특별히 '나훔'에 의해 생생하게 묘사된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을 정리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우선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를 살펴보고(1:2-8, 10-14), 심판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를 살펴봅시다(1:10, 23-10, 35-7). 그리고 '니느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관찰하십시오(1:11, 14, 31-4).

김동현 목사 (출판국 지도)

흰 눈과 같이 맑은
사랑부 학생들

이동 섭 (집사, 사랑부 생지처장)



제가 사랑부에 대해서 알게 된 지는 무척 오래되었습니 다. 대학교 2학년인 큰 아이가 유치부에 다닐 때였으니까요. 저는 사랑부를 단지 교육관 1층에서(당시에는 봉사관)이 아닌 교육관 1층에서 보았습시다.) 장애인들이 모여 애배드리는 특별한 부서로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시다. 그러면서도 몸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는 선생님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아 그분들이 무척 존경스러웠습시다. 사랑부에서 봉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언젠가 나도 봉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시다.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대예배 헌금위원으로 함께 봉사하시던 김부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사랑부 봉사를 권유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하여 사랑부 봉사를 결심하였습시다. 일단 용기를 내어 사랑부에 봉사하러 갔지만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쉽지가 않았습시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오셨던 행동으로 저를 당황하게 했습시다. 그러나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과 만날 날이 기다려졌고, 아이들도 차차 저를 잘 따르게 되었습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부에서 봉사하면서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곤 합니다. 비록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마치 로봇처럼 어색하게 움직이지만 주님께서 저들의 찬양을 몹시 기뻐하신다는 것을 사랑부의 모든 교사들은 압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흰 눈과 같이 해맑고 순수한 사랑부 학생들. 사랑을 그리워하기에 마음을 열고 친해지기까지는 보통학생들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한 번 믿음을 갖게 되면 조그만 사랑일지라도 큰 감명을 받고 온 몸으로 고마움과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은 볼 때, 오히려 제가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곤 합니다. 사랑부로 오게 해주시고 교사로 섬기게 하시고 더욱이 은혜에는 처장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Catechism

19. 예배자의 태도와 주일 성수 및

합당한 명세와 서원에 관하여

(1) 예배자의 태도와 주일 성수

복음 시대에 기도나 예배를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행해야 한다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과 직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가정에서 할 수도, 시영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은밀히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공중 예배는 보다 엄숙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인류로 하여금 일주일의 한 날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셨습시다. 이 안식일은 창세 이후에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주일 중 첫날로 바뀌었습니다. 이 날을 주일(主日)이라고 하며, 이 날은 교회의 안식일로 세상 끝 날까지 계속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데 지기가 있도록 일주일 사역을 미리 정돈해 놓고,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일체 중단하고 안식해야 하며, 그 날의 모든 시간은 예배를 위하여, 혹은 필요한 의무와 자비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2) 합당한 명세와 서원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명세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명세하거나 다른 것으로 명세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합법적인 권위자가 요구하는 것을 이행해야 합당한 명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명세할 때는 그것이 매우 엄숙한 행위임을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 때 지기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명세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명세할 때는 신하고 옳은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명세해서는 안 되며, 자기가 실제로 행하고 결심한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명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명세를 잘못하여 부득이하게 이행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가 아닌 것을 명세했을 경우에는 자신에게 예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서원도 명세와 같은 성경을 띠고 있습니다. 서원을 행할 때도 경건한 주의 열을 기울여야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해야 합니다. 서원이 번아웃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마음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서 배후신 공물을 감사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소원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서원하는 자는 그 서원에 따르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일들을 더 엄격히 책임져야 합니다.

(김정호 전도사(현부 부도)

■ 협력선교사 허요셉(이집트)